

에너지 브리프¹

2026년 4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가 국내 LNG 수급에 미치는 영향

미·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 Ras Laffan 피격으로 글로벌 LNG 공급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천연가스 춘계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연동 계약에 내재된 약 4~5개월의 가격 시차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도입단가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 대비를 위한 재고 확보가 집중되는 8~10월에 도입단가 상승이 겹칠 경우 연간 도입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Ras Laffan 시설 피격으로 인한 카타르발 구조적 공급 차질이 3~5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중장기 도입비용의 추가 상방 압박 요인이다. 본고에서는 전쟁 경과와 에너지 인프라 피해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LNG 도입 구조와 계절별 수급 패턴을 분석하여 전쟁 지속 기간에 따른 시나리오별 도입가격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김선용 부연구위원(kimsy@keei.re.kr), 노남진 선임연구위원(singbird@keei.re.kr)

전쟁 경과 및 LNG 현물가격 추이

2025년 말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과 인프라 부족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었다. 오만(무스카트) 및 제네바를 통한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미국이 항공모함 포드함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 전력을 중동에 증강하는 상황에서도, 2월 중 동아시아 LNG 현물 가격(JKM)은 \$10.5~11.2/MMBtu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에는 \$10.73/MMBtu를 기록하였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개시로 전쟁이 본격화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하였다. 이란이 3월 2일 호르무즈 해협을 공식 봉쇄하면서 JKM은 첫 거래일에 \$13.37/MMBtu로 전일 대비 \$2.6/MMBtu 급등하였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과 헤즈볼라 참전으로 전선이 확대된 3월 3일에는 \$15.77/MMBtu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3월 초·중순에는 \$15.1~16.1/MMBtu 수준에서 일시적인 보합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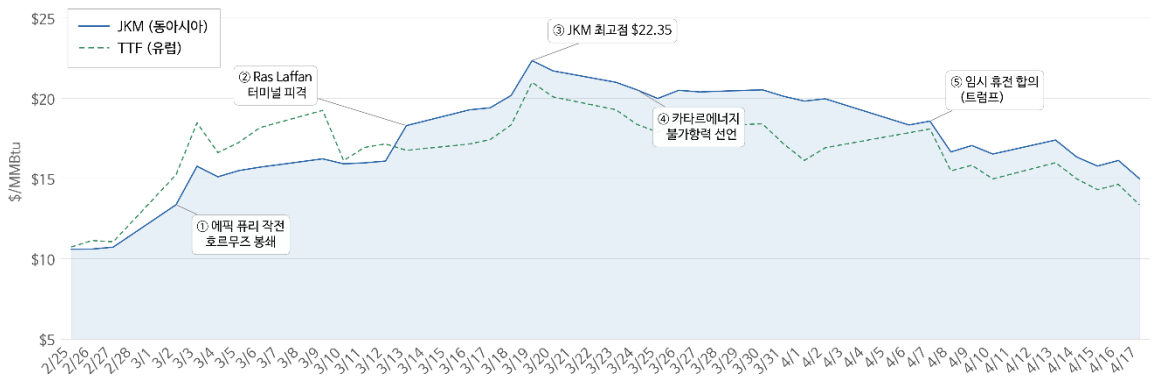
3월 13일 이란군이 카타르 Ras Laffan LNG 터미널을 포함한 중동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JKM은 하루 만에 \$16.1/MMBtu에서 \$18.3/MMBtu로 재차 급등하였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3월 16일 \$19.28/MMBtu를 돌파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22.35/MMBtu로 전쟁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의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TTF도 같은 날 \$21.0/MMBtu까지 동반 상승하였다. 3월 24일 카타르에너지가 불가항력을 공식

¹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선언하면서 증장기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었으나, Ras Laffan 피격 당시 이미 예견된 일어서서 가격은 \$20.5/MMBtu 수준으로 최고점 대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3월 말~4월 초 미국의 호르무즈 재개방 최후통첩이 제시되고,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임시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전선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JKM은 휴전 합의 전후로 약 10% 하락하여 \$16/MMBtu 수준에 이르렀다. 4월 11~12일 이슬라마바드 1차 협상이 핵 포기 및 호르무즈 통제권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전황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4월 17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하면서 유가가 11% 급락하는 등 시장이 잠시 안도하였으나,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자 이란은 이튿날인 4월 18일 해협을 재봉쇄하고 IRGC 함정이 인근 유조선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월 21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이란이 2차 협상 불참을 공식화하고 군비 재충전에 나선 가운데, 교전 재개 가능성이 고조되며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국면이다.

그림 1 전쟁 경과에 따른 LNG 현물 가격 추이



자료: LSEG Refinitiv Eikon (자료 검색일: 2026.4.20)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

3월 중순 이란군의 공격으로 카타르 Ras Laffan LNG 터미널의 LNG 트레인 2기가 손상되었으며, 3월 24일 카타르에너지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공식 선언하였다. 피격으로 손상된 LNG 트레인 2기의 생산 차질 용량은 연간 약 1,280만 톤(카타르 전체 수출 능력의 약 17%)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3~5년에 걸쳐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의 장기계약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²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카타르 장기계약 도입 물량은 연간 약 610만 톤 규모로, 이 중 1건은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계약 규모는 약 4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다.³

Ras Laffan 시설의 물리적 손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장기간 공급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에너지 측은 실사 이후 실제 피해 규모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전면적 공급 중단보다는 일부 지연·감산 또는 대체 공급 전환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LNG 액화플랜트의 복구에는 수년이 소요되며, 즉각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한 대체도 계약 체결부터 도입 개시까지 통상 2~3년의 시차가 있어 단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²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ndia-sees-qatar-lng-supply-cut-after-iran-strike-2026-03-20/> (자료 검색일: 2026.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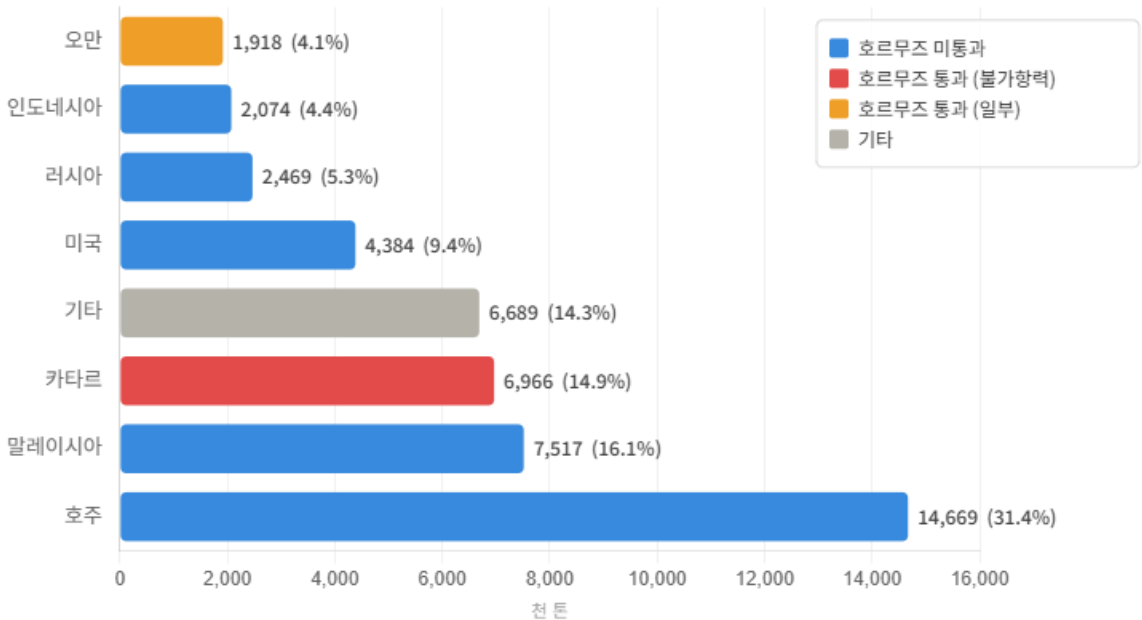
³ 자료: S&P Global LNG Analytics(자료 검색일: 2026.3.31)

국내 LNG 도입 구조

(1) 도입선별 수입 현황

2025년 기준 국내 LNG 수입량은 약 4,669만 톤이다. 주요 도입선은 호주(31.4%), 말레이시아(16.1%), 카타르(14.9%), 미국(9.4%), 러시아(5.3%), 인도네시아(4.4%), 오만(4.1%), 기타(14.3%) 순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량은 카타르(14.9%) 외에 오만(4.1%) 등을 포함하면 약 19% 수준으로, 유럽이 러시아 LNG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구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산된 편이다. 그러나 카타르는 장기계약 중 가장 큰 단일 공급원(2026년 약 6.1백만 톤, 17%)으로, 불가항력 적용 범위에 따라 국내 LNG 수급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림 2 2025년 국내 도입선별 LNG 수입 현황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6년 3월호)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도입 계약 구조

국내 LNG 도입은 통상 장기계약 70~80%, 현물 20~30%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장기계약 80%, 현물 20% 수준이다. 장기계약은 가격 연동 방식에 따라 유가 연동, 가스허브 연동,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분되며, 연동 방식에 따라 가격 반영 시차와 위험 노출 구조가 달라진다. 유가 연동 방식은 주로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월평균 도입가격(JCC, Japan Crude Cocktail) 또는 브렌트(Brent)유를 기준 지표로 삼는다. 도입가격은 통상 다음과 같은 선형 공식으로 산정된다.

$$P = a + b \times X$$

P: LNG 도입단가(\$/MMBtu), a: 기본 상수(\$/MMBtu), b: 기율기 계수(통상 0.11~0.15), X: 기준 원유가격(\$/bbl)

유가 연동 계약의 도입가격은 통상 유가의 3~6개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약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예를 들어 3월에 유가가 급등하면 해당 물량의 도입단가 상승은 7~8월 이후부터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쟁이 단기에 종결되면 장기계약분의 도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화되면 도입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장기계약의 약 2/3가 유가 연동 방식으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도입단가에 본격 반영되면서 도입비용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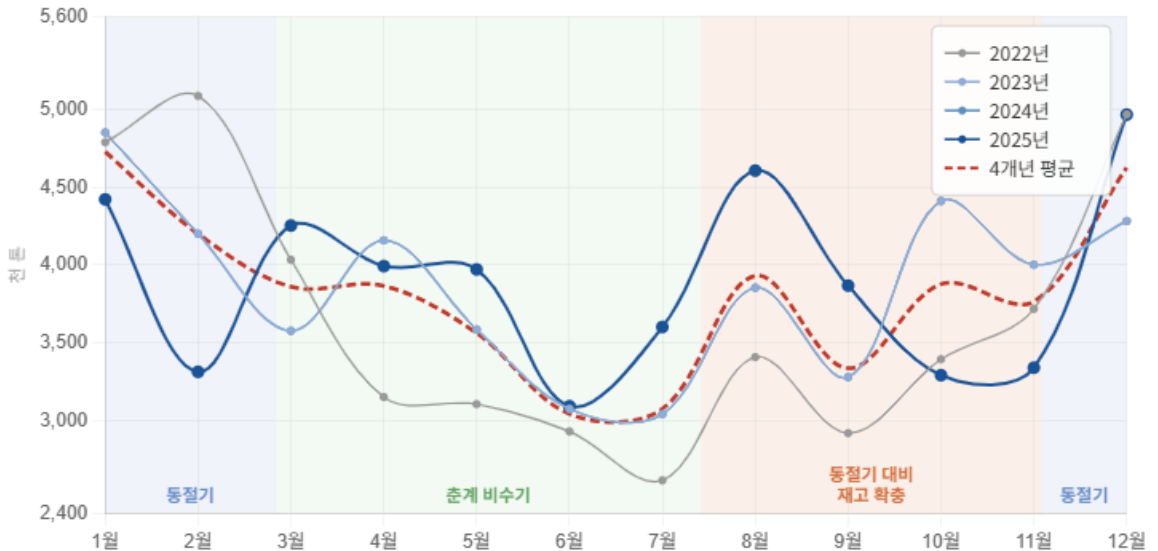
가스허브 연동 방식은 미국 Henry Hub(HH), 영국 NBP 또는 캐나다 AECO등 가스 허브 거래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도입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산 LNG의 경우 주로 Henry Hub에 연동되며, 액화-운송비를 별도로 가산하는 구조이다. 가스허브 연동 계약은 유가와 상관계수가 낮아 유가 급등 시 상대적으로 도입단가 상승 폭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현물 도입은 스팟시장(Spot Market)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되며, 동아시아 LNG 가격지표인 JKM을 기준으로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도입가격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3월에 카고(cargo)를 구매 결정하면 실제 국내 도착 및 대금 결제는 4~5월경에 이루어진다. 현물은 수요 변동이나 장기계약 차질 발생 시 보완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시장 가격에 즉각 노출되는 만큼 LNG 가격 급등기에는 도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3) 계절별 도입 구조

국내 천연가스 계절별 도입구조를 살펴보면, 난방용 수요로 인해 계절별 수입패턴이 뚜렷하다. 동절기에는 겨울철 난방수요로 수입량이 많고, 동절기를 지나 춘계 비수기로 가면 도입량이 줄어들다가, 동절기 대비 재고를 확충하는 시기가 되면 다시 수입이 늘는 패턴이다. 현재(4월)는 춘계 비수기로 천연가스 수요가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쟁이 단기에 종결될 경우 국내 LNG 도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가 연동 장기계약의 약 4~5개월 시차를 고려하면, 3~4월의 고유가 수준은 7~8월 도입단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나 이 시기는 수요 자체가 낮아 전체 비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림 3 국내 천연가스 수입 월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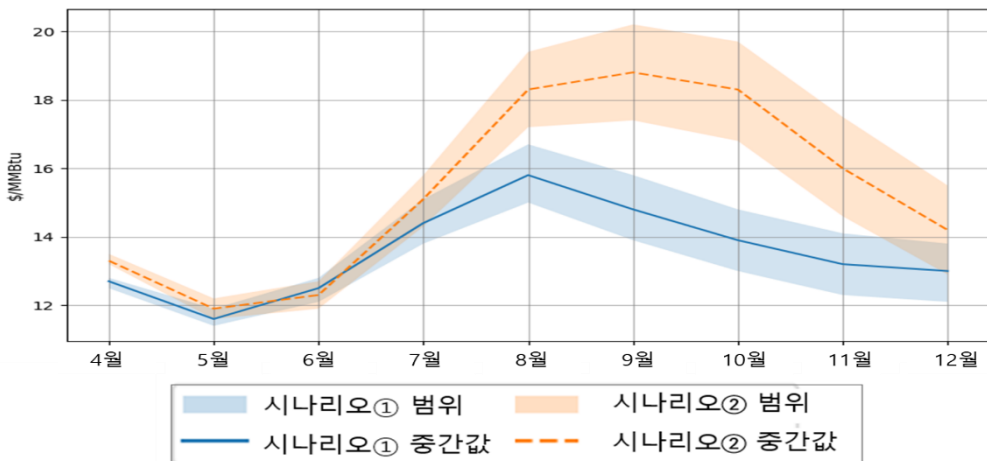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3~2025년 다수 호)를 토대로 저자 작성.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다. 통상 국내 LNG 공급사들은 겨울철(12월~익년 2월) 최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8월부터 현물 도입을 본격 개시하여 10~11월까지 저장 재고를 최대 수준으로 채우는 전략을 취한다. 이 시기는 현물 도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간인 만큼, 고유가·고LNG가격 상황이 여름~가을까지 이어진다면 재고 확충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가 연동 장기계약의 반영 시차까지 맞물리면, 9~10월에 도입단가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시점과 재고 확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겹치게 된다.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연간 LNG 도입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핵심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가격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쟁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천연가스 도입가격 전망에 따르면 국내 LNG 도입가격 전망은 전쟁 지속 기간 및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⁴ 현재 연동지수별 장기계약 규모와 유가, LNG 현물 가격, 장기계약 및 현물의 국내 도입가격 반영까지의 시차를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도입가격을 전망하였다.

그림 4 시나리오별 국내 LNG 도입가격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6년 3월 27일).

시나리오①(4월 말 종결)

4월 말 전쟁이 종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5월 일부 재개, 6월 정상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경우 카타르 장기계약 공급 차질은 3~4월 2개월에 그치며, 국내 LNG 도입단가는 8월에 \$15.0~\$16.7/MMBtu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시나리오②(6월 말 종결)

전쟁이 6월 말까지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일부 재개, 8월 정상화를 가정한다. 공급 차질이 4개월로 장기화될 경우 9월 국내 LNG 도입단가는 \$17.4~\$20.2/MMBtu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공급 부족 누적으로 유가는

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6.3.23).

6월 최고 \$179/bbl 수준까지 상승하고 이 고유가가 유가 연동 장기계약 도입가격에 약 4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9~10월에 도입단가 최고점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 시기는 동절기 대비 재고 확충을 위한 현물 도입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연간 도입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이번 이란전쟁이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물량 차질보다는 도입비용 상승이 핵심이다. 국내 LNG 수입선이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 단기 물량 충격은 제한적이나, 유가 연동 장기계약의 높은 비중과 Ras Laffan 시설 손상에 따른 구조적 공급 차질은 중장기적 도입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현재는 계절적 비수기로 충격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동절기 대비 현물 도입이 집중되는 하절기와 유가 연동 반영 최고점이 맞물리면서 연간 도입비용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①현물 도입 시점의 전략적 관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기 현물 도입 전략이다. 전쟁 국면이 진정될 경우에는 높은 현물 가격을 회피하여 도입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분산하되, 장기화될 경우에는 하반기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4~5월 물량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동절기 재고 확충을 위한 8~11월 현물 도입 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②역내 소비국과 공조 강화.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일·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 간 현물 경쟁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하고, 긴급 시 카고 스왑(Cargo Swap)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역내 소비국 간 공동 구매 협력을 통해 개별 국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선제적 수요관리 및 요금 충격 최소화. LNG 도입단가 상승이 하반기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사전에 가동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운용 과정에서 미수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요금 조정 경로를 미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④카타르 도입선 대체 계획 수립. 중기적으로는 Ras Laffan 불가항력이 최장 5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호주·미국·캐나다 등 비중동 LNG 생산국과의 협력 채널을 즉시 가동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수급 위기 상황에서 체결되는 장기계약은 가격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급 안정화 이후로 계약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고 그 전까지는 단기 계약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⑤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 카타르 도입선 대체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지역·도입선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비중동 LNG 장기계약 비중을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LNG 비축 인프라 확충과 수요 측 유연성 제고를 에너지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유사 사태 재발 시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2년 각월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3년 각월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4년 각월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5년 각월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6년 3월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6.3.23)

LSEG Refinitiv Eikon (자료 검색일: 2026.4.20)

S&P Global LNG Analytics. (자료 검색일: 2026.4.20)

1.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3월 국제유가, 연료탄, JKM은 전월 대비 각각 87.9%, 16.1%, 68.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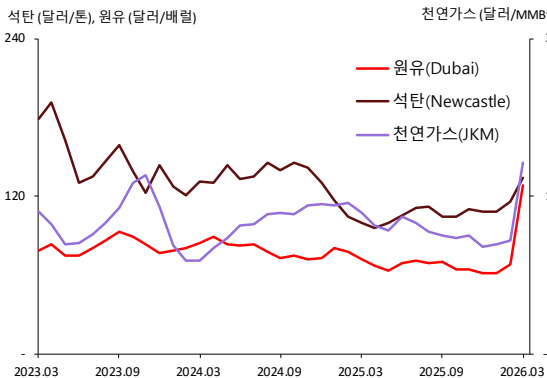
- 3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월 대비 87.9% 상승
 -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함에 따라 전쟁의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
 - 전쟁의 여파로 3월 원유 공급량이 일평균 1,010만 배럴 감소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 발생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동 걸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재고는 3월 중 2억 500만 배럴 감소
- 국제 연료탄 가격은 해상 운송의 리스크 증가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인한 대체 수요로 전월 대비 16.1% 상승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 TTF는 전월 대비 각각 68.8%, 58.8% 상승, Henry Hub는 2.9% 하락
 - 세계 2위 수출국인 카타르의 LNG 공급 중단으로 동북아 가격 지표인 JKM과 유럽 가격 지표 TTF가 폭등
 - 미국 LNG 수출터미널의 포화로 수출 용량에 제약이 발생해 미국 국내 천연가스 지표인 Henry Hub와 JKM, TTF 간의 디커플링 현상 발생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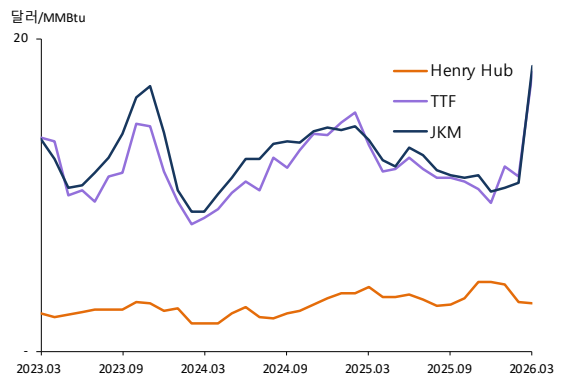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유 (달러/배럴)	96.4 (39.1)	82.1 (-14.8)	79.6 (-3.0)	65.0 (-7.2)	64.5 (-0.8)	62.1 (-3.8)	62.0 (-0.1)	68.4 (10.4)	128.5 (87.9)
석탄 (달러/톤)	357.1 (161.8)	174.7 (-51.1)	135.6 (-22.3)	104.4 (-0.1)	110.4 (5.8)	108.6 (-1.6)	108.3 (-0.3)	116.0 (7.2)	134.6 (16.1)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6.5 (75.3)	2.7 (-59.1)	2.4 (-9.4)	3.4 (11.4)	4.5 (33.2)	4.4 (-1.6)	4.3 (-2.9)	3.1 (-26.7)	3.0 (-2.9)
TTF	40.2 (149.6)	13.0 (-67.6)	11.0 (-15.9)	10.9 (-2.2)	10.4 (-4.4)	9.5 (-8.8)	11.8 (24.5)	11.2 (-4.9)	17.8 (58.8)
JKM	33.9 (89.1)	14.4 (-57.4)	11.9 (-17.7)	11.1 (-1.8)	11.2 (1.2)	10.2 (-9.0)	10.4 (1.9)	10.8 (3.7)	18.3 (68.8)

주: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2월 원유,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0.9%, 3.3% 하락,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22.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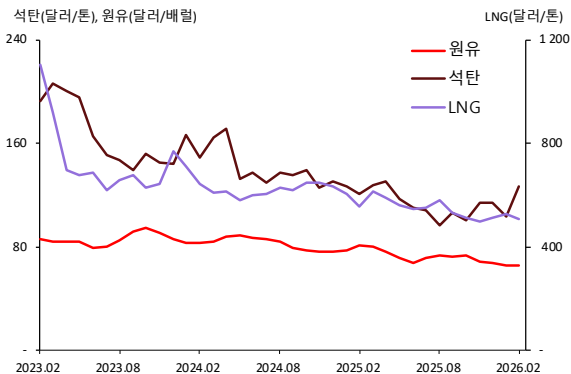
- 2월 원유 수입 단가는 비OPEC+의 증산으로 인한 원유 공급 증가로 전월 대비 0.9% 하락
 - 1월 말 북극 한파로 인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월 24일 기준 일평균 200만 배럴 감소하였으나, 2월에 원유 생산 능력을 회복하여 2월 20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599만 배럴 증가
 - 202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OPEC+의 증산에 따른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26년 2월 원유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4% 하락
- ※ 2025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약 1,360만 배럴로 미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원료탄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22.6% 상승
- LNG 수입 가격은 2월 미국-일본 노선 LNG 운임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3% 하락
 -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로 인해 LNG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9.0% 하락
- 2월 프로판 수입 가격과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4.8%, 6.3% 상승
 - 전월 대비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및 부탄 계약 가격이 모두 3.8% 상승한 영향
 - 2025년 OPEC+의 증산과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인해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4%, 10.7% 하락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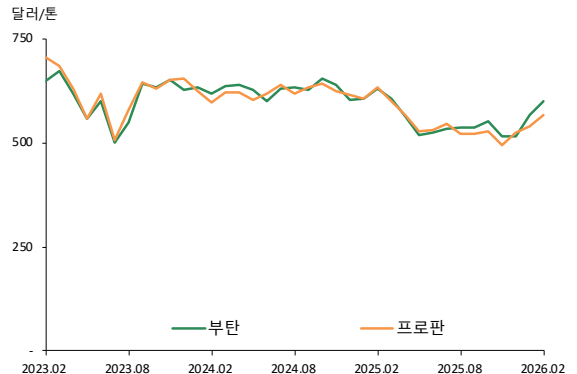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원유 (달러/배럴)	102.3 (45.5)	85.9 (-16.1)	82.8 (-3.6)	72.8 (-0.6)	73.3 (0.8)	68.8 (-6.1)	67.6 (-1.7)	65.8 (-2.8)	65.2 (-0.9)
석탄 (달러/톤)	225.6 (95.4)	168.7 (-25.2)	142.3 (-15.7)	105.7 (9.9)	100.7 (-4.8)	113.5 (12.8)	113.0 (-0.4)	102.8 (-9.0)	126.0 (22.6)
LNG (달러/톤)	1 055.3 (91.6)	780.5 (-26.0)	628.4 (-19.5)	533.3 (-8.0)	514.1 (-3.6)	499.4 (-2.9)	513.9 (2.9)	524.5 (2.1)	507.2 (-3.3)
프로판 (달러/톤)	756.3 (15.4)	626.4 (-17.2)	621.0 (-0.9)	521.2 (0.0)	529.0 (1.5)	495.2 (-6.4)	525.2 (6.0)	539.3 (2.7)	565.3 (4.8)
부탄 (달러/톤)	756.9 (21.3)	615.6 (-18.7)	628.5 (2.1)	536.9 (0.2)	551.2 (2.7)	516.7 (-6.3)	516.0 (-0.1)	565.3 (9.6)	601.2 (6.3)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3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각 8.8%, 15.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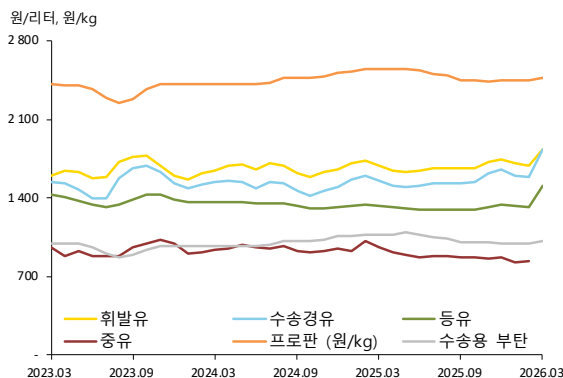
-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
 -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여 가격 급등을 억제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3월 6일 급등하는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5월까지 연장시행하고, 3월 27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 경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이기로 결정
 - 3월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98원,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436원을 적용
- SK가스과 E1 등의 LPG 공급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프로판 및 부탄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상승
 -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국내 석유제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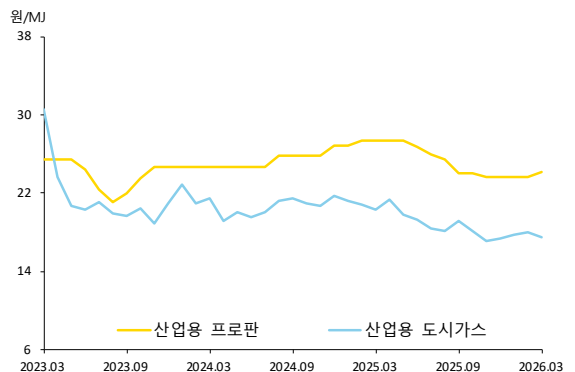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휘발유 (원/리터)	1 812.7 (13.9)	1 643.3 (-9.3)	1 646.8 (0.2)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1 688.6 (-0.9)	1 836.4 (8.8)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843.4 (32.4)	1 558.4 (-15.5)	1 502.6 (-3.6)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1 587.3 (-0.8)	1 829.0 (15.2)
등유 (원/리터)	1 487.4 (57.1)	1 399.5 (-5.9)	1 344.7 (-3.9)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1 312.2 (-0.8)	1 502.7 (14.5)
중유 (원/리터)	1 116.1 (52.4)	931.5 (-16.5)	938.5 (0.8)	871.2 (0.8)	855.3 (-1.8)	873.2 (2.1)	828.6 (-5.1)	834.6 (0.7)	- -
프로판 (원/kg)	2 480.1 (18.5)	2 372.0 (-4.4)	2 446.2 (3.1)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2 445.4 (-0.1)	2 470.5 (1.0)
수송용 부탄 (원/리터)	1 081.8 (16.0)	957.4 (-11.5)	995.3 (4.0)	999.1 (-0.1)	998.3 (-0.1)	998.1 (-0.0)	998.2 (0.0)	998.0 (-0.0)	1 011.7 (1.4)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3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전월 대비 하락

-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2025년 7월 인상 결정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0.5원/Mcal 하락한 15.1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2.5%, 2.9% 하락
 -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홀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줄곧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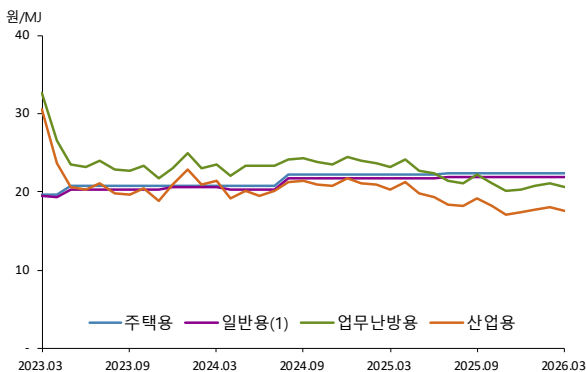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인상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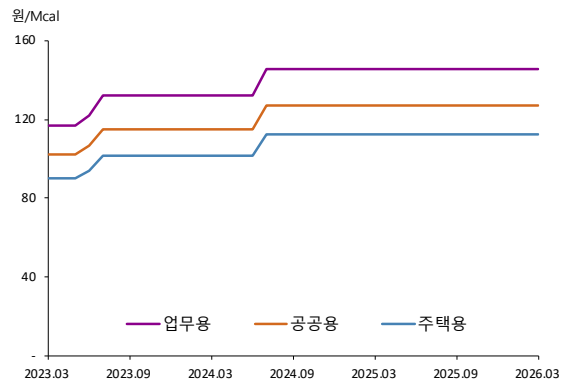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16.6 (16.8)	20.4 (22.8)	21.4 (4.9)	22.4 -	22.4 -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16.3 (17.4)	20.1 (23.2)	21.0 (4.6)	21.9 -	21.9 -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8.7 (66.6)	26.0 (-9.5)	23.6 (-8.9)	21.2 (-4.4)	20.1 (-5.2)	20.3 (1.3)	20.8 (2.1)	21.1 (1.4)	20.5 (-2.5)
산업용	25.9 (79.9)	23.3 (-10.1)	20.9 (-10.5)	18.2 (-5.1)	17.1 (-6.0)	17.3 (1.5)	17.7 (2.5)	18.0 (1.7)	17.5 (-2.9)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74.2 (13.8)	96.1 (29.5)	107.0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96.4 (13.8)	124.8 (29.5)	138.9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가스 요금은 서울지역 기준,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3월 전기요금은 주택용은 전월 수준을 유지, 일반용, 산업용은 봄·가을철 요금 적용으로 하락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변화가 없으며, 산업용 겨울철 전력량 요금도 2024년 10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산정되어 인하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여 2025년 4분기와 동일한 5.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
-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인상 이후 kWh당 9.0원을 유지함에 따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한 주택용 요금은 전월 수준을 유지, 일반용, 산업용은 봄·가을철 요금 전환으로 하락

□ 3월 LNG 발전 연료비 단가는 3.3% 하락, 유연탄, 원자력 발전 연료비 단가는 각각 6.3%, 0.2% 상승

- LNG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LNG/유연탄)는 1.52로 전월 대비 9.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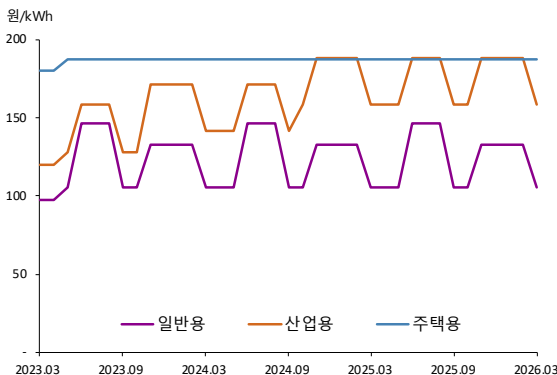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57.2 (8.1)	185.4 (17.9)	188.0 (1.4)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일반용	94.2 (14.4)	122.4 (29.9)	125.0 (2.2)	105.9	133.0 (25.6)	133.0	133.0	133.0	105.9 (-20.4)
산업용	108.1 (15.1)	145.5 (34.5)	163.6 (12.5)	158.8	188.8 (18.9)	188.8	188.8	188.8	158.8 (-15.9)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204.6 (113.9)	179.6 (-12.3)	141.1 (-21.4)	115.5 (-4.2)	110.1 (-4.7)	110.1 (0.0)	117.7 (6.9)	118.8 (0.9)	114.9 (-3.3)
유연탄	110.4 (96.3)	101.0 (-8.5)	76.3 (-24.5)	65.1 (-2.7)	65.9 (1.2)	66.0 (0.2)	70.7 (7.2)	71.3 (0.8)	75.8 (6.3)
원자력	6.36 (2.5)	6.37 (0.2)	6.41 (0.6)	6.42 (0.2)	6.42 (0.1)	6.43 (0.1)	6.43 (0.1)	6.44 (0.2)	6.4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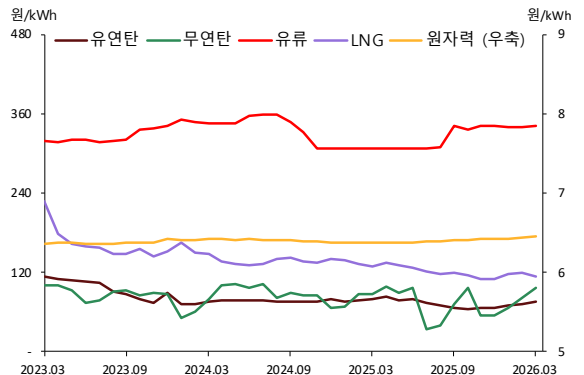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3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1.4% 상승⁵

- 전국과 육지 SMP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제주 SMP는 전월 대비 1.6% 하락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3월 REC 현물 가격은 7.04만원/REC로 전월 대비 1.2% 하락

- REC 거래량은 190.7만 REC로 전월 대비 51.8% 증가, 거래대금은 1,342.9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 증가
- 2026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2026년 REC 발급량은 9,429만 REC로 2025년 RPS 의무공급량 대비 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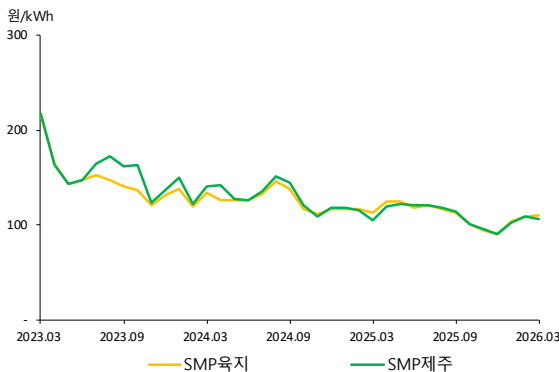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SMP(통합) (원/kWh)	196.7 (109.2)	167.1 (-15.6)	128.4 (-22.9)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육지	196.0 (109.3)	167.0 (-15.4)	128.3 (-22.9)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제주	252.2 (97.2)	176.9 (-30.3)	133.5 (-24.3)	101.2 (-11.3)	95.8 (-5.3)	91.0 (-5.0)	102.9 (13.1)	108.5 (5.4)	106.8 (-1.6)
SMP 결정 비중 (%)									
LNG	87.0	82.5	93.3	70.6	74.0	61.7	77.8	87.6	-
유연탄	11.5	14.9	6.1	28.6	24.7	38.0	21.4	11.3	-
유류	1.4	2.4	0.1	0.3	0.0	0.0	0.0	0.0	-
REC 현물가격 (천원/REC)	56.9 (64.3)	72.8 (27.9)	76.2 (4.6)	72.3 (0.5)	72.1 (-0.2)	72.3 (0.2)	71.7 (-0.9)	71.3 (-0.5)	70.4 (-1.2)
REC 거래량 (만 REC)	1 374.3 (34.9)	1 446.1 (5.2)	1 372.1 (-5.1)	164.7 (-23.0)	165.2 (0.3)	191.8 (16.1)	158.1 (-17.6)	125.7 (-20.5)	190.7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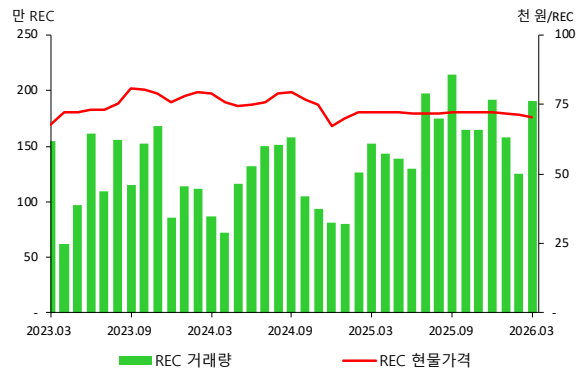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⁵ 당월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3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에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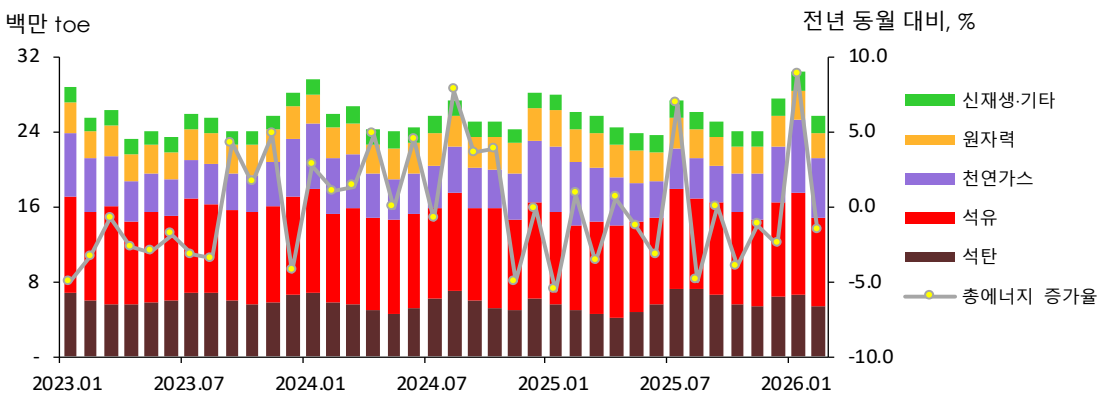
□ 2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석탄, 석유, 신재생·기타의 증가에도 원자력, 가스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 석탄 소비는 산업 부문의 감소에도 발전 부문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산업용은 철강업의 증가세 지속에도 석유화학 등에서 줄며 2.3% 감소. 발전용은 원자력 발전 감소로 22.4% 증가
- 가스 소비는 발전, 산업, 건물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며 4.5% 감소. 발전용은 침두부하 축소로 3.1% 감소. 산업용은 석유화학·철강 외 모든 업종에서 줄며 4.2% 감소, 건물용은 난방수요 감소로 7.9% 감소
- 석유 소비는 기초화학물질업 회복에 따른 원료용 LPG 증가 및 항공유 소비의 증가 등에 따라 1.3% 증가
- 원자력 발전은 계획예방정비로 정지한 원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네 배 증가하여 25.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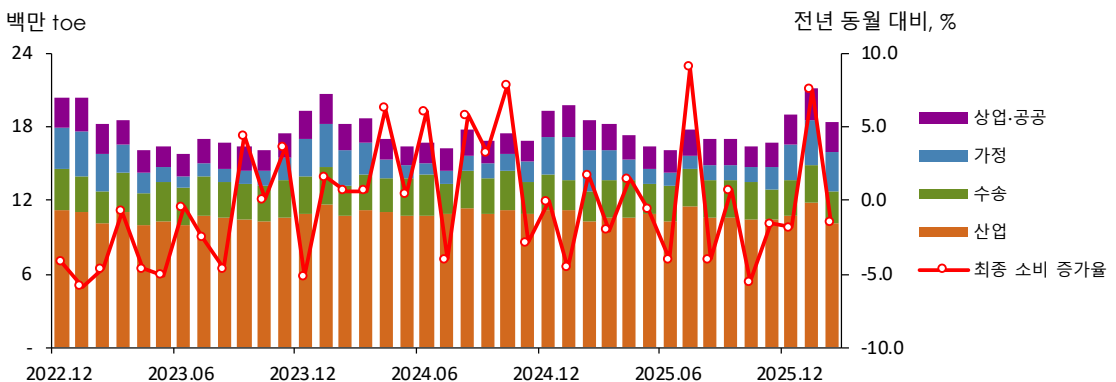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수송 부문의 소폭 증가에도 산업, 건물 부문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

- 산업 부문 소비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철강 생산 회복에도 설날 연휴 이동('25.1. →'26.2.)으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 수송 부문 소비는 도로 부문에서 감소했으나 항공유 소비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 건물 부문 소비는 전년 대비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수요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석탄, 가스, 열, 신재생·기타는 감소한 반면, 석유, 전기는 소폭 증가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원유 (달러/배럴)										
WTI	75.7	69.7	75.1	71.2	67.9	64.8	57.9	60.3	64.5	91.0
	(-2.4)	(0.2)	(7.7)	(-5.2)	(-4.6)	(-14.4)	(-2.7)	(4.1)	(7.1)	(41.0)
Dubai	79.6	73.2	80.4	77.9	72.5	69.4	62.1	62.0	68.4	128.5
	(-3.0)	(0.9)	(9.8)	(-3.1)	(-7.0)	(-12.8)	(-3.8)	(-0.1)	(10.4)	(87.9)
Brent	79.8	73.1	78.3	75.0	71.5	68.2	61.6	64.7	69.4	99.6
	(-2.9)	(-0.4)	(7.1)	(-4.3)	(-4.7)	(-14.5)	(-3.2)	(5.0)	(7.2)	(43.6)
수입단가 (CIF)	82.8	76.2	77.5	80.9	79.9	73.4	67.6	65.8	65.2	-
	(-3.6)	(-0.5)	(1.7)	(4.3)	(-1.3)	(-11.4)	(-1.7)	(-2.8)	(-0.9)	-
천연가스 (달러/MMBtu)										
일본 수입 가격	12.8	12.6	13.2	12.8	12.5	12.0	11.3	11.5	11.3	14.9
	(-10.7)	(-1.4)	(4.4)	(-3.1)	(-1.9)	(-6.3)	(1.5)	(1.5)	(-1.4)	(31.1)
Henry Hub	2.4	3.4	3.7	3.7	4.1	3.6	4.4	4.3	3.1	3.0
	(-9.4)	(14.2)	(9.2)	(0.5)	(10.6)	(50.4)	(-1.6)	(-2.9)	(-26.7)	(-2.9)
NBP	10.8	14.2	15.0	15.2	13.0	11.8	9.7	12.2	10.5	17.9
	(-14.3)	(-0.7)	(5.4)	(1.2)	(-14.1)	(8.6)	(-7.8)	(25.1)	(-13.6)	(70.0)
TTF	10.9	13.8	14.7	15.3	13.2	11.9	9.5	11.8	11.2	17.8
	(-16.1)	(-0.5)	(6.1)	(4.1)	(-13.6)	(9.1)	(-8.8)	(24.5)	(-4.9)	(58.8)
JKM	11.9	14.3	14.2	14.4	13.5	12.3	10.2	10.4	10.8	18.3
	(-17.8)	(1.6)	(-1.3)	(1.7)	(-6.3)	(3.3)	(-9.0)	(1.9)	(3.7)	(68.8)
수입단가 (달러/톤, CIF)	628.4	633.9	606.6	557.2	612.3	555.4	513.9	524.5	507.2	-
	(-19.6)	(-2.2)	(-4.3)	(-8.1)	(9.9)	(-11.6)	(2.9)	(2.1)	(-3.3)	-
석탄 (달러/톤)										
호주 뉴캐슬 연료탄	135.6	130.1	116.8	105.0	100.1	106.3	108.6	108.3	116.0	134.6
	(-22.4)	(-8.3)	(-10.2)	(-10.1)	(-4.7)	(-21.6)	(-1.6)	(-0.3)	(7.2)	(16.0)
수입단가 (CIF)	143.2	130.2	126.5	120.9	127.6	114.4	113.7	103.0	126.6	-
	(-15.6)	(3.4)	(-2.8)	(-4.5)	(5.6)	(-20.1)	(-0.2)	(-9.5)	(23.0)	-
석유제품 (달러/배럴)										
휘발유	93.0	84.6	86.7	86.3	81.0	80.8	77.3	73.0	77.3	137.5
	(-5.8)	(0.2)	(2.5)	(-0.5)	(-6.1)	(-13.2)	(-5.2)	(-5.6)	(6.0)	(77.8)
경유	96.3	88.9	95.4	91.7	86.5	87.7	82.4	82.4	89.9	192.8
	(-9.6)	(-0.4)	(7.3)	(-3.9)	(-5.7)	(-8.9)	(-12.0)	(0.0)	(9.1)	(114.5)
중유	74.0	70.2	75.4	76.7	72.7	66.2	53.7	57.6	67.1	109.8
	(3.1)	(-1.8)	(7.3)	(1.8)	(-5.2)	(-10.5)	(-4.9)	(7.3)	(16.4)	(63.7)
프로판	610.4	635.0	625.0	635.0	615.0	565.0	495.0	525.0	545.0	545.0
	(6.2)	-	(-1.6)	(1.6)	(-3.1)	(-7.4)	(4.2)	(6.1)	(3.8)	-
부탄	607.5	630.0	615.0	625.0	605.0	546.3	485.0	520.0	540.0	540.0
	(5.3)	-	(-2.4)	(1.6)	(-3.2)	(-10.1)	(5.4)	(7.2)	(3.8)	-
납사	72.3	69.0	72.8	72.1	69.4	64.4	58.5	59.3	65.7	115.8
	(4.5)	(-0.9)	(5.5)	(-1.0)	(-3.8)	(-10.8)	(-5.3)	(1.4)	(10.9)	(76.3)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646.6 (0.2)	1 653.6 (1.6)	1 709.3 (3.4)	1 728.3 (1.1)	1 688.9 (-2.3)	1 680.6 (2.1)	1 740.2 (1.3)	1 704.4 (-2.1)	1 688.6 (-0.9)	1 836.4 (8.8)
등유 (원/리터)	1 344.7 (-3.9)	1 312.6 (0.2)	1 327.9 (1.2)	1 341.4 (1.0)	1 332.9 (-0.6)	1 312.3 (-2.4)	1 334.3 (1.4)	1 323.2 (-0.8)	1 312.2 (-0.8)	1 502.7 (14.5)
경유 (원/리터)	1 502.6 (-3.6)	1 497.2 (2.5)	1 563.6 (4.4)	1 594.0 (1.9)	1 555.0 (-2.4)	1 553.2 (3.4)	1 650.5 (1.9)	1 600.1 (-3.1)	1 587.3 (-0.8)	1 829.0 (15.2)
중유 (원/리터)	938.4 (0.7)	946.9 (2.0)	927.9 (-2.0)	1 014.3 (9.3)	963.5 (-5.0)	901.9 (-3.9)	873.2 (2.1)	828.6 (-5.1)	834.6 (0.7)	-
프로판 (원/kg)	2 446.1 (3.1)	2 521.6 (1.8)	2 522.4 (0.0)	2 547.0 (1.0)	2 545.4 (-0.1)	2 501.3 (2.3)	2 445.0 (0.1)	2 447.3 (0.1)	2 445.4 (-0.1)	2 470.5 (1.0)
부탄 (원/리터)	995.2 (3.9)	1 058.3 (2.8)	1 059.0 (0.1)	1 073.9 (1.4)	1 073.7 (-0.0)	1 044.2 (4.9)	998.1 (-0.0)	998.2 (0.0)	998.0 (-0.0)	1 011.7 (1.4)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1.4 (4.9)	22.3 -	22.3 -	22.3 -	22.3 -	22.3 (4.4)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21.0 (4.6)	21.8 -	21.8 -	21.8 -	21.8 -	21.8 (3.9)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3.6 (-9.1)	24.5 (4.1)	24.0 (-2.1)	23.7 (-1.2)	23.2 (-2.3)	22.2 (-6.1)	20.3 (1.3)	20.8 (2.1)	21.1 (1.4)	20.5 (-2.5)
산업용	20.8 (-10.6)	21.7 (4.7)	21.2 (-2.4)	20.9 (-1.4)	20.3 (-2.6)	19.2 (-7.7)	17.3 (1.5)	17.7 (2.5)	18.0 (1.7)	17.5 (-2.9)
열 (원/Mcal)										
주택용	106.9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5.0)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38.8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5.0)	145.8 -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21.3 (11.3)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5.0)	127.3 -	127.3 -	127.3 -	127.3 -

주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기 (원/kWh)										
주택용	174.0 (1.6)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일반용	111.1 (2.5)	119.0 -	119.0 -	119.0 -	91.9 (-22.8)	111.1 -	119.0 -	119.0 -	119.0 -	91.9 (-22.8)
산업용	149.6 (13.8)	174.8 -	174.8 -	174.8 -	144.8 (-17.2)	162.3 (8.5)	174.8 -	174.8 -	174.8 -	144.8 (-17.2)
기후환경요금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연료비조정요금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유류	342.7 (3.8)	307.7 (0.2)	307.8 (0.0)	308.4 (0.2)	308.2 (-0.1)	319.1 (-6.9)	341.6 (-0.2)	341.0 (-0.2)	341.1 (0.0)	342.2 (0.3)
LNG	141.1 (-21.6)	141.3 (4.3)	138.6 (-1.9)	132.9 (-4.1)	129.8 (-2.4)	124.2 (-12.0)	110.1 (0.0)	117.7 (6.9)	118.8 (0.9)	114.9 (-3.3)
무연탄	83.9 (-10.1)	67.2 (-20.7)	67.5 (0.5)	88.2 (30.7)	87.4 (-0.8)	73.4 (-12.5)	55.8 (2.0)	66.9 (19.9)	82.4 (23.2)	96.4 (16.9)
유연탄	76.2 (-24.6)	80.4 (5.2)	76.4 (-5.0)	78.1 (2.2)	80.1 (2.5)	73.7 (-3.3)	66.0 (0.2)	70.7 (7.2)	71.3 (0.8)	75.8 (6.3)
원자력	6.41 (0.6)	6.38 (-0.3)	6.38 -	6.37 (-0.2)	6.37 -	6.39 (-0.3)	6.43 (0.1)	6.43 (0.1)	6.44 (0.2)	6.46 (0.2)
SMP (원/kWh)										
SMP육지	128.3 (-23.2)	116.6 (3.8)	117.1 (0.5)	116.4 (-0.6)	113.1 (-2.8)	112.7 (-11.8)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SMP제주	133.5 (-24.5)	118.2 (8.7)	118.9 (0.6)	116.1 (-2.4)	105.6 (-9.0)	112.5 (-15.3)	91.0 (-5.0)	102.9 (13.1)	108.5 (5.4)	106.8 (-1.6)
SMP통합	128.4 (-23.2)	116.6 (3.9)	117.1 (0.5)	116.4 (-0.6)	113.0 (-2.9)	112.7 (-11.8)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76.2 (4.7)	67.2 (-10.5)	69.8 (3.9)	72.2 (3.4)	72.1 (-0.0)	71.9 (-5.6)	72.3 (0.2)	71.7 (-0.9)	71.3 (-0.5)	70.4 (-1.2)
REC 거래량 (천 REC)	1 143.5 (-5.1)	816.9 (-12.8)	803.4 (-1.7)	1 260.0 (56.8)	1 528.0 (21.3)	1 566.2 (37.0)	1 918.4 (16.1)	1 581.2 (-17.6)	1 256.8 (-20.5)	1 907.2 (51.8)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일차에너지 소비

	2023년	2024년p		2025년p			2026년p		
				12월	1월	2월		12월	1월
석탄 (백만 톤)	120.5 (-3.1)	112.9 (-6.3)	10.1 (-6.6)	9.3 (-17.6)	8.1 (-16.4)	112.3 (-0.5)	10.7 (5.8)	10.9 (17.9)	8.9 (10.3)
- 원료탄 제외	96.4 (-4.3)	90.5 (-6.1)	8.2 (-6.7)	7.3 (-22.0)	6.3 (-20.7)	88.8 (-1.8)	8.6 (5.6)	8.8 (21.0)	7.0 (12.7)
석유 (백만 bbl)	779.7 (-4.3)	803.1 (3.0)	68.6 (-0.6)	65.5 (-9.5)	61.0 (-1.6)	780.5 (-2.8)	66.9 (-2.6)	73.2 (11.8)	61.8 (1.3)
가스 (백만 toe)	57.1 (-3.8)	61.0 (6.9)	6.6 (4.4)	7.0 (-0.1)	6.8 (13.6)	60.4 (-1.0)	6.1 (-7.7)	7.8 (11.3)	6.5 (-4.5)
- 천연가스 (백만 톤)	43.5 (-4.2)	46.4 (6.7)	5.2 (4.8)	5.4 (-1.0)	5.2 (15.7)	46.1 (-0.7)	5.0 (-4.0)	6.1 (13.0)	4.8 (-7.4)
- 도시가스 (십억 m3)	0.2 (-371.6)	0.3 (56.3)	-0.3 (15.6)	-0.0 (-60.6)	0.1 (-61.3)	0.1 (-71.7)	-0.5 (83.6)	-0.2 (322.5)	0.3 (304.2)
원자력 (TWh)	180.5 (2.5)	188.8 (4.6)	16.7 (2.5)	17.9 (19.6)	16.2 (10.3)	184.7 (-2.2)	15.4 (-7.6)	14.6 (-18.1)	12.1 (-25.6)
신재생·기타 (백만 toe)	18.4 (10.4)	19.6 (6.5)	1.7 (16.9)	1.6 (1.9)	1.7 (21.0)	20.9 (6.8)	1.8 (5.0)	1.9 (15.8)	1.7 (0.1)
총에너지 (백만 toe)	304.9 (-1.6)	310.6 (1.8)	28.2 (-0.2)	27.9 (-5.5)	26.1 (0.9)	305.8 (-1.5)	27.5 (-2.5)	30.3 (8.4)	25.6 (-1.9)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3년	2024년p		2025년p			2026년p		
				12월	1월	2월		12월	1월
석탄	23.9	22.0	21.6	20.1	18.8	22.3	23.5	21.8	21.1
석유	38.7	39.1	36.6	35.4	35.2	38.2	36.1	35.9	36.6
가스	18.7	19.7	23.3	25.1	26.1	19.8	22.0	25.8	25.4
- 천연가스	18.7	19.6	24.2	25.2	25.9	19.7	23.8	26.3	24.4
- 도시가스	0.1	0.1	-1.0	-0.1	0.2	0.0	-1.8	-0.5	1.0
원자력	12.6	12.9	12.6	13.6	13.3	12.9	12.0	10.3	10.1
신재생·기타	6.0	6.3	5.9	5.8	6.6	6.8	6.4	6.2	6.7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3년	2024년	2025년p				2026년p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산업	126.5 (-2.4)	130.7 (3.4)	11.0 (0.8)	11.3 (-2.6)	10.2 (-2.8)	128.5 (-1.7)	10.7 (-3.0)	11.8 (5.2)	10.2 (-0.2)	
수송	35.3 (-2.7)	35.0 (-1.0)	3.0 (-0.1)	2.4 (-19.4)	2.5 (2.9)	34.1 (-2.6)	3.0 (1.1)	3.0 (22.4)	2.5 (0.7)	
가정	22.3 (-5.3)	22.1 (-1.2)	2.9 (-4.2)	3.5 (1.0)	3.4 (14.9)	22.9 (3.6)	2.9 (-1.1)	3.7 (6.3)	3.2 (-7.2)	
상업·공공	24.4 (1.3)	24.6 (0.9)	2.3 (-0.6)	2.6 (-1.6)	2.5 (6.0)	25.2 (2.3)	2.3 (1.2)	2.7 (5.2)	2.5 (-1.2)	
최종 소비	208.5 (-2.3)	212.3 (1.8)	19.3 (-0.3)	19.8 (-4.3)	18.6 (2.0)	210.6 (-0.8)	19.0 (-1.6)	21.2 (7.5)	18.4 (-1.5)	
석탄 (백만 톤)	48.4 (0.2)	47.5 (-2.0)	4.2 (4.1)	4.0 (-4.7)	3.6 (-7.1)	45.3 (-4.6)	4.0 (-6.5)	4.2 (4.2)	3.5 (-2.5)	
석유제품 (백만 bbl)	766.2 (-4.1)	796.4 (3.9)	66.9 (-0.6)	65.5 (-7.7)	60.9 (-1.4)	780.7 (-2.0)	65.9 (-1.5)	73.5 (12.3)	61.7 (1.4)	
- 비에너지유 제외	338.5 (-2.1)	332.1 (-1.9)	30.7 (-1.3)	25.8 (-19.1)	25.5 (1.6)	318.5 (-4.1)	30.4 (-1.1)	30.7 (19.2)	25.9 (1.4)	
전기 (TWh)	532.7 (-0.3)	536.6 (0.7)	44.4 (-1.7)	47.8 (-1.6)	46.1 (1.1)	536.7 (0.0)	44.3 (-0.2)	48.3 (1.0)	46.2 (0.1)	
천연가스 (백만 톤)	2.2 (33.2)	3.3 (52.4)	0.3 (39.6)	0.3 (25.2)	0.3 (21.8)	3.7 (12.4)	0.4 (19.0)	0.4 (16.4)	0.4 (16.8)	
도시가스 (십억 m³)	21.7 (-7.3)	21.3 (-1.8)	2.8 (-3.0)	3.2 (-0.2)	3.2 (14.5)	21.8 (2.3)	2.7 (-1.6)	3.4 (6.2)	2.9 (-9.6)	
열·신재생·기타 (천 toe)	10.2 (-0.3)	10.1 (-1.2)	1.1 (-3.7)	1.2 (-1.8)	1.1 (9.1)	10.5 (3.9)	1.1 (0.0)	1.3 (5.6)	1.1 (-6.4)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비중

	2023년	2024년	2025년p				2026년p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산업	60.7	61.6	57.2	57.0	54.9	61.0	56.3	55.7	55.6	
수송	16.9	16.5	15.6	12.3	13.5	16.2	16.0	14.0	13.8	
가정	10.7	10.4	15.2	17.6	18.3	10.9	15.3	17.4	17.2	
상업·공공	11.7	11.6	12.0	13.0	13.4	12.0	12.3	12.8	13.4	
석탄	14.9	14.2	14.0	13.0	12.4	13.8	13.5	12.7	12.3	
석유제품	46.3	47.0	43.8	41.4	40.9	46.4	43.4	43.1	42.0	
- 비에너지유 제외	21.0	20.2	20.5	16.7	17.6	19.5	20.6	18.6	18.1	
전기	22.0	21.7	19.8	20.8	21.3	21.9	20.0	19.5	21.6	
천연가스	1.4	2.0	2.3	2.2	2.1	2.3	2.8	2.4	2.5	
도시가스	10.6	10.2	14.7	16.5	17.2	10.5	14.7	16.3	15.8	
열·신재생·기타	4.9	4.7	5.6	6.0	6.1	5.0	5.6	5.9	5.8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